

IIT

INSTITUTE FOR
INTERNATIONAL
TRADE

Trade Focus

Vol.14 No.31

중국 경제 하반기 전망 및 대중 수출 영향

2015년 8월

이봉걸 연구위원



한국무역협회
국제무역연구원



목차

[요 약]

I. 중국 경제 현황	1
II. 중국 경제 평가	6
III. 중국 경제 하반기 전망	9
IV. 우리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	15

☐ 보고서 내용 문의처

이 봉 겈 연구위원 (☎ 02-6000-5262, fengjie@kita.net)

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은 7.0%를 기록하여 시장 예상치 6.8%를 상회하면서 중국경제 경착륙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였다. 미국의 경기회복에 힘입어 대미 수출이 증가하면서 6월 들어 수출이 상승세로 전환하였으며 부동산 경기 개선으로 가구, 전자재, 가전 등 내구 소비재의 판매가 증가하였다. 또한 수출과 소비가 개선되면서 산업생산 증가율이 소폭이나마 3개월 연속 상승하였다. 정책성 인프라 투자 증가로 고정자산투자 둔화세도 멈추는 등 경제 하방압력이 크게 완화되었다.

2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시장예상치를 상회하게 된 원인은 우선 중국정부의 미니부양책이 가시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. 중국정부는 올해에만 3월, 5월, 6월 3회에 걸쳐 기준금리를 0.75%p 인하하였으며 특히 지난 6월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와 기준율을 동시에 인하하였다.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회복을 위해 지난 3월 말에는 주택담보대출 계약금 비율을 하향하는 등 강력한 부동산 부양정책을 실시하였다. 둘째는 제조업 침체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의 성장이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를 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. 2014년 중국 국내총생산(GDP)에서 서비스업인 3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9.5%로 2012년 이후 2차 산업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. 2분기에도 서비스업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8.4% 증가하여 전체 경제성장률 7.0%를 크게 넘어서고 있다.

올해 하반기 중국경제는 주식시장 급락에 따른 금융불안과 소비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△중국 정부의 유동성 완화정책 △인프라 투자 증가 △대외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△부동산 시장 회복으로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은 정부목표치인 7.0%를 지켜낼 것으로 전망된다.

중국경제 성장률 둔화는 우리 대중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. 우리 수출의 약 1/4이 중국으로의 수출이다. 특히 중국 제조업의 위축, 증시불안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, 중국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에 따른 자급률 증가 등으로 3분기에도 대중국 수출 둔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. 그러나 일대일로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 증가, 중국 수출의 증가 및 자동차, 스마트폰 등의 신상품 출시로 4분기 이후 대중국 수출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.

본 문

I. 중국 경제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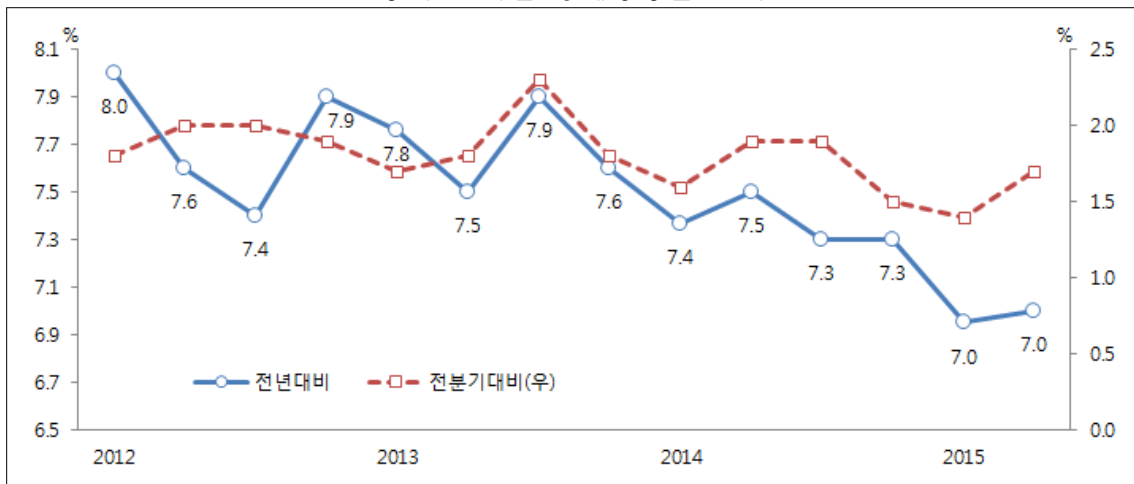
□ 올해 2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7.0%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 상회

- 중국통계국이 7월 15일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(GDP)은 29조 6,868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7.0% 성장을 기록하며 시장예상치 6.8%*를 상회

* IMF 및 32개 투자은행(IB)의 중국 경제성장률 평균 예상치

- 여전히 2009년 1분기(6.6%) 이후 최저 수준이나 둔화 추세가 완화됨
- 전분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1.7%로 1분기 1.4%에 비해 0.3%p 상승

<중국 분기별 경제성장률 변화>



자료 : 중국통계국, CEIC

□ 3차산업의 성장으로 7%대 성장률 유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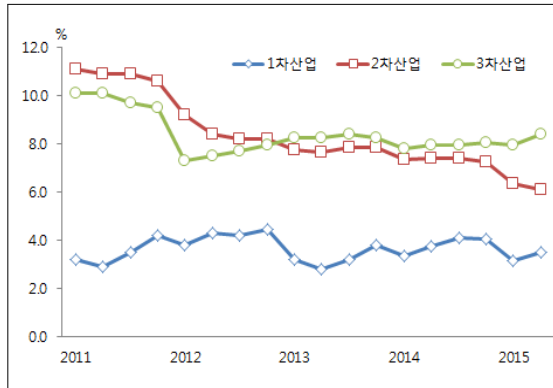
- 산업별로 살펴보면 2차산업의 성장률은 6.1%로 다소 부진한 반면, 3차산업은 전년 동기 대비 8.4% 증가하면서 7% 성장률 유지에 큰 기여

* 산업별 경제성장률 : 1차산업 3.5%, 2차산업 6.1%, 3차산업 8.4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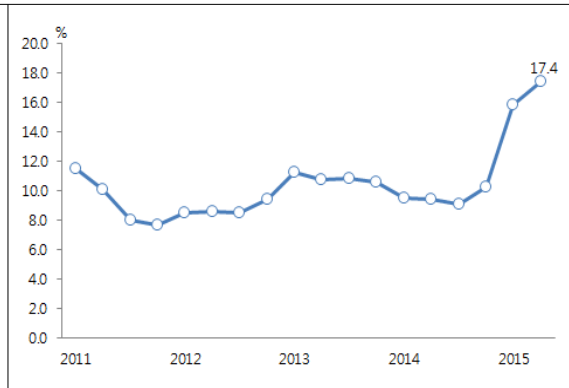
- 2차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성장률이 둔화된 반면, 3차산업 성장률은 1분기에 비해 0.5%p 상승하며 4년래 최고 성장률 기록

* 특히, 3차산업 중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증시 급등의 영향으로 금융업이 17.4% 성장하면서 3차산업 전반의 성장세로 이어짐

<산업별 성장률 변화>



<금융업의 성장률 변화>



자료 : 중국통계국, CEIC

□ 5월 이후 소매판매 증가율이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경제성장률 둔화를 억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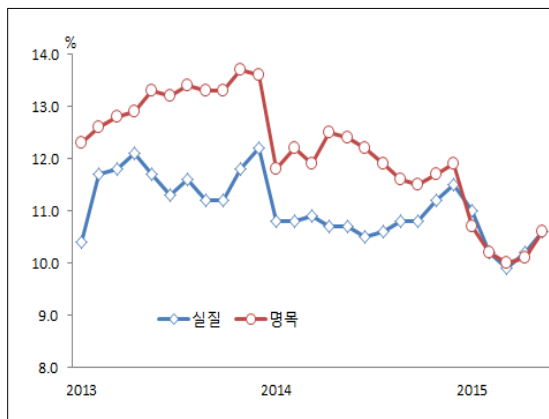
○ 상반기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0.4% 증가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 12.1%, 올해 1분기 10.6%에 비해 둔화

○ 그러나 5월 이후 소매판매 증가율이 2개월 연속 상승세로 올 초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내수침체에 대한 우려는 완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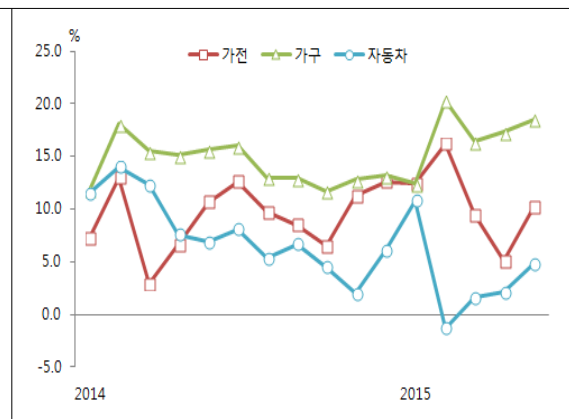
－ 부동산 경기 개선으로 가구, 전자재, 가전 등 내구재 소매판매 증가에 힘입어 6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10.6% 증가

* 부동산판매 증가율 : -15.8%(2월) → -9.3%(3월) → -3.1%(4월) → 3.1%(5월) → 10.0(6월)

<소매판매 증가율 변화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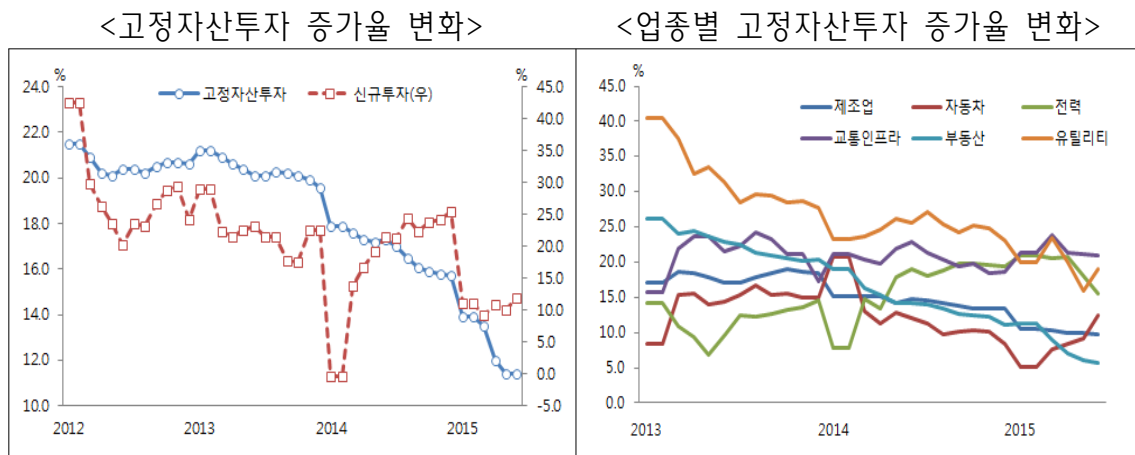
<품목별 소매판매 증가율 변화>



자료 : 중국통계국, CEIC

□ 인프라 투자가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고정자산투자 둔화 억제

- 상반기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1.4% 증가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 17.3%에 비해 둔화되었으나 투자 위축 완화
 - 신규투자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2.0% 증가하면서 5월(10.0%)에 비해 상승
- 도로, 수도, 전기, 가스 등 인프라 관련 투자 및 자동차 생산 투자가 양호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, 제조업, 부동산 관련 투자는 둔화세 지속
 - 일대일로(一帶一路) 등 정책성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도로, 철도 등 교통인프라 투자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0.9%로 양호한 증가율을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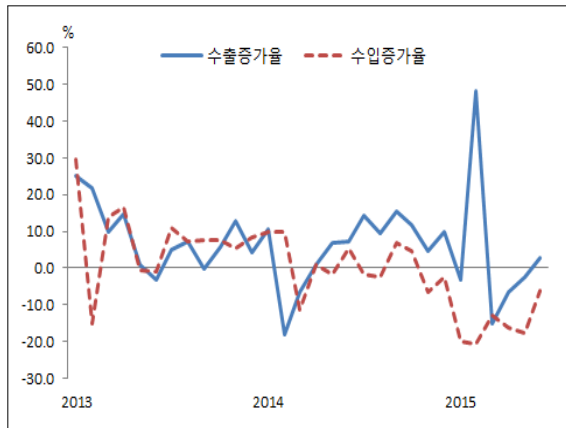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중국통계국, CEIC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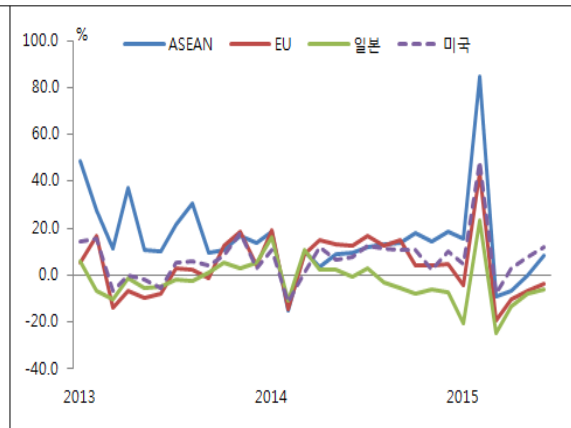
□ 수출은 대미 수출 증가로 4개월 만에 상승 전환

- 미국의 경기회복에 힘입어 대미 수출이 증가하면서 6월 수출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2.8% 늘어나 4개월 만에 상승 전환
 - 대EU와 대일본 수출은 감소세가 완화되고 있으며, 미국의 경기 회복에 힘입어 6월 대미국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(12.0%)을 보인 가운데 대ASEAN 수출도 4개월 만에 8.6% 증가
 - 6월 수출이 증가하면서 상반기 수출증가율은 지난해 상반기와 같은 0.9%로 회복

<수출입증가율 변화>



<주요국(경제권)으로의 수출증가율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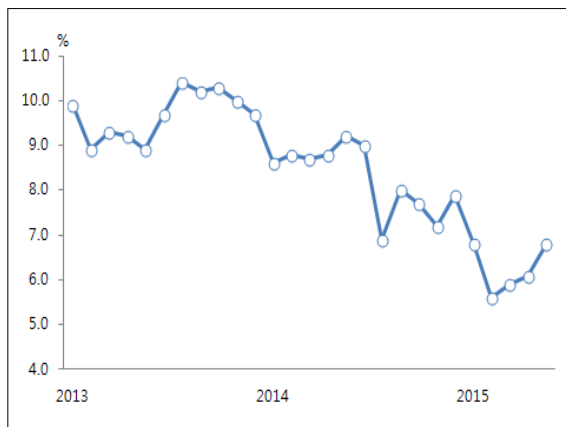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해관총서, CEIC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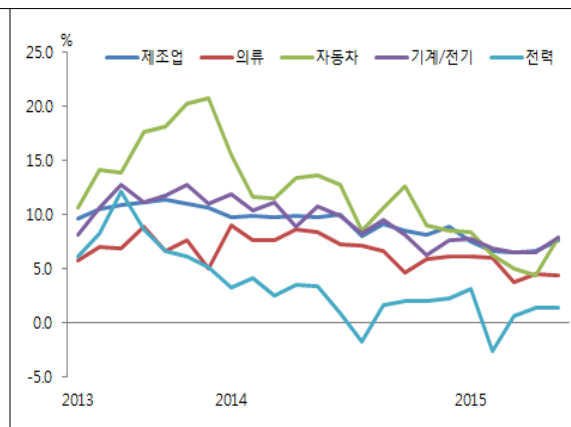
□ 수출과 소비가 개선되면서 산업생산 증가율 회복

- 상반기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6.3% 증가하면서 1분기 6.4%에 비해 소폭 둔화하였으나 4월 이후 수출과 소비가 개선되면서 3개월 연속 상승
 - － 6월 산업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6.8% 증가하면서 올 초(1~2월) 수준으로 회복
- 제조업, 자동차, 기계, 전기 등의 생산이 증가하였으며 의류 생산은 소폭 둔화
 - － 6월 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7.7% 늘어나 5월에 비해 1.0%p 상승
 - * 특히 6월 자동차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7.9% 증가하면서 5월에 비해 3.5%p 상승

<산업생산 증가율 변화>



<주요 업종별 산업생산 증가율 변화>



자료 : 중국통계국, CEIC

<주요 경제지표 증가율>

		GDP	소매 판매	소비자 물가	생산자 물가	고정 자산 투자	수출	수입	무역 수지	총통화 (M2)	산업 생산
단위		%	%	%	%	%	%	%	억 달러	%	%
2014년	1월	—	11.8	2.5	-1.6	17.9	10.6	9.9	319	13.2	8.6
	2월	—	11.8	2.0	-2.0	17.9	-18.1	9.9	-230	13.3	8.6
	3월	7.4	12.2	2.4	-2.3	17.6	-6.6	-11.4	77	12.1	8.8
	4월	—	11.9	1.8	-2.0	17.3	0.9	0.8	185	13.2	8.7
	5월	—	12.5	2.5	-1.4	17.2	7.0	-1.6	359	13.5	8.8
	6월	7.5	12.4	2.3	-1.1	17.3	7.2	5.5	316	14.7	9.2
	7월	—	12.2	2.3	-0.9	17.0	14.5	-1.6	473	13.5	9.0
	8월	—	11.9	2.0	-1.2	16.5	9.4	-2.4	498	12.8	6.9
	9월	7.3	11.6	1.6	-1.8	16.1	15.3	7.0	310	12.9	8.0
	10월	—	11.5	1.6	-2.2	15.9	11.6	4.6	454	12.6	7.7
	11월	—	11.7	1.4	-2.7	15.8	4.7	-6.7	545	12.3	7.2
	12월	7.3	11.9	1.5	-3.3	15.7	9.7	-2.4	496	12.2	7.9
연간		7.4	12.0	2.0	-1.9	15.7	6.1	0.5	3,831	12.2	8.3
2015년	1월	—	10.7	0.8	-4.3	13.9	-3.3	-19.9	600	10.8	6.8
	2월	—	10.7	1.4	-4.8	13.9	48.3	-20.5	606	12.5	6.8
	3월	7.0	10.2	1.4	-4.6	13.5	-15.0	-12.7	31	11.6	5.6
	4월	—	10.0	1.5	-4.6	12.0	-6.4	-16.2	341	10.1	5.9
	5월	—	10.1	1.2	-4.6	11.4	-2.5	-17.6	589	10.8	6.1
	6월	7.0	10.6	1.4	-4.8	11.4	2.8	-6.1	465	11.8	6.8
상반기		7.0	10.4	1.3	-4.6	11.4	0.9	-15.5	2,632	11.8	6.3

주 : 전년 동월(기) 대비 증가율
 자료 : 중국통계국, 해관총서, CEIC

II. 중국 경제 평가

☐ 중국 경제 경착륙에 대한 우려는 해소

- 2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을 넘어선 7.0%를 기록하면서 중국 경제 경착륙에 대한 우려는 해소
 - 6월 수출증가율 상승 및 산업생산, 소매판매 등 실물경제 지표가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함으로써 경기침체 지속에 대한 우려는 감소

☐ 부양정책에 의한 경제성장률 유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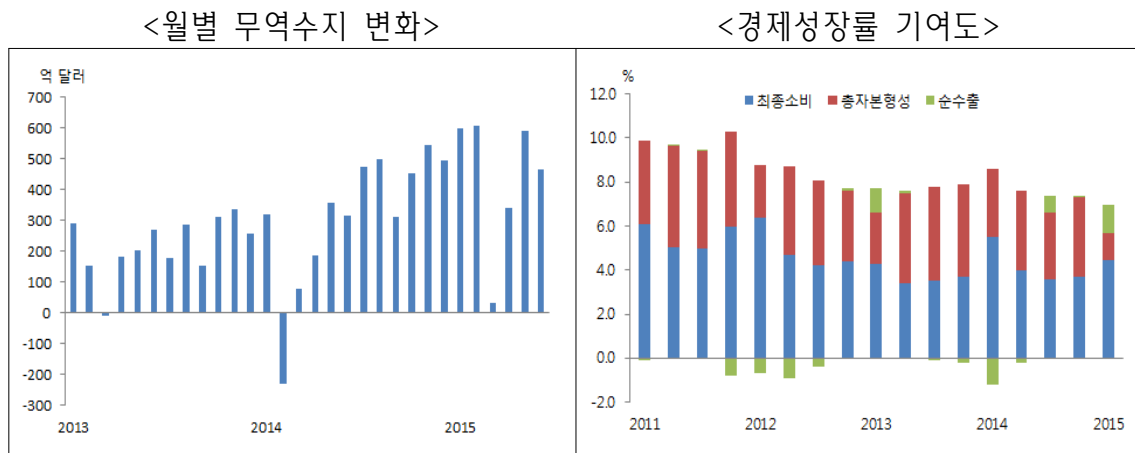
- 중국 정부는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올해에만 3번의 금리 인하와 3번의 기준율 인하를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확대
 - 중국 정부는 올해에만 3월, 5월, 6월 3회에 걸쳐 기준금리를 0.75%p 인하하였으며 2월, 4월, 6월 3회에 걸쳐 기준율도 인하
 - * 특히 6월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0월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와 기준율을 동시에 인하
- 또한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 회복을 위해 강력한 부동산 부양책을 실시
 - 3월 30일 재정부는 거래세가 면제되는 일반 주택 보유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였으며 인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계약금 비율을 하향 조정
 - * 2주택 보유자의 경우 주택구매 대출에 대한 계약금 비율을 기존 60%에서 40%로, 주택공적금 대출을 통해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금 비율은 기존 30%에서 20%로 하향 조정하였음

☐ 무역수지 흑자 확대에 의한 불완전한 성장

- 2분기 중국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.8% 감소했으나, 수입액이 13.6% 감소하며 막대한 수준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
 - 2분기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1,395억 달러로 2014년 4분기 1,494억 달러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많은 무역수지 흑자 기록

- 1,23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지난 1분기 순수출의 경제성장률 기여도가 1.3%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2분기 무역수지 확대가 중국 경제성장률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추정

* 2분기 최종소비의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4.2%로 1분기 4.5%에 비해 0.3%p 하락한 것으로 보아 순수출의 경제성장률 기여도가 대폭 상승한 것으로 추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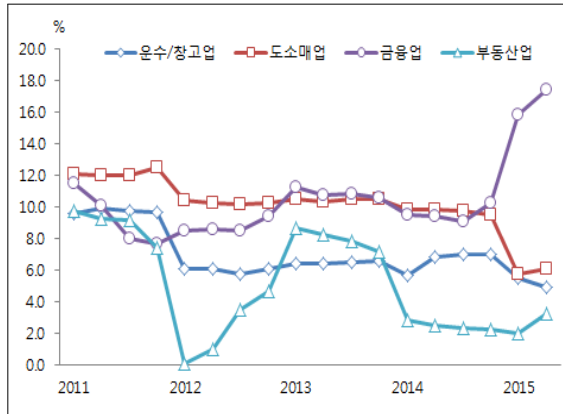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중국통계국, 해관총서, CEIC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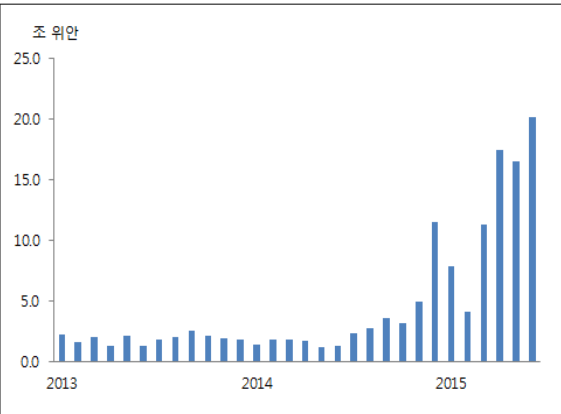
□ 서비스업(3차산업)이 경기 하방을 억제하고 경제성장에 기여

- 2015년 상반기 국내총생산(GDP)에서 서비스업(3차산업)이 차지하는 비중은 49.5%로 2014년 48.2%에 비해 1.3%p 상승
 - 국내총생산(GDP)에서 서비스업(3차산업)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이후 제조업(2차산업)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상승
- 서비스업(3차산업)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8.4% 증가하였으며 특히, 금융업, 부동산업의 성장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경제성장을 견인
 - 증시 급등으로 인한 거래금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금융업 성장률이 증가
 - * 올해 2분기 상하이주식시장 거래금액은 54조 1천억 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조 2천억 위안에 비해 12.7배 증가

<주요 서비스업 성장률 변화>



<상하이 증권거래소 월별 거래금액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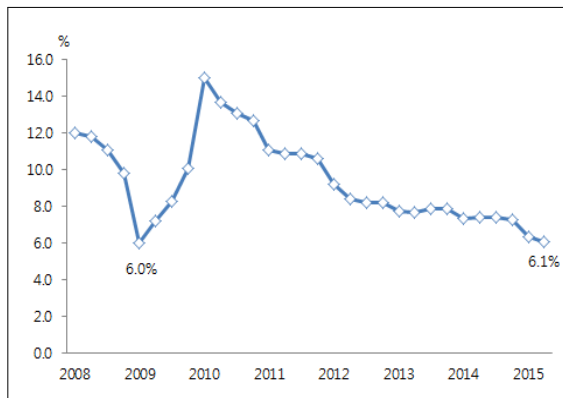


주 : 2015년은 상반기 기준
자료 : 중국통계국, CEIC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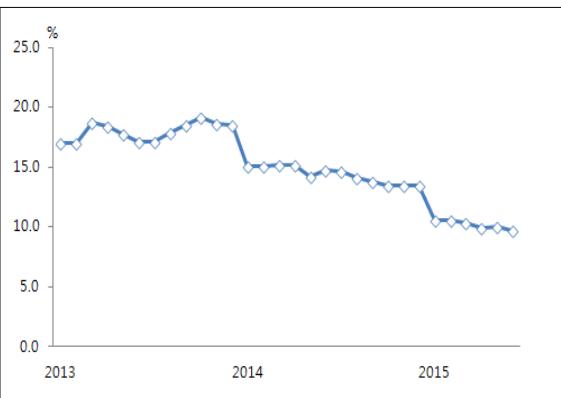
□ 그러나 제조업 불안은 여전히 지속

- 제조업 성장률과 제조업 관련 투자가 둔화세를 지속함에 따라 제조업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은 지속
 - 2차산업(제조업) 성장률이 1분기 6.4%에서 2분기 6.1%로 둔화
 - 상반기 제조업 관련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9.7% 증가에 그치면서 사상 최저 증가율 기록
 - 수출과 소매판매의 개선으로 산업생산 증가율이 2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

<2차산업(제조업) 성장률>



<제조업 관련 투자 증가율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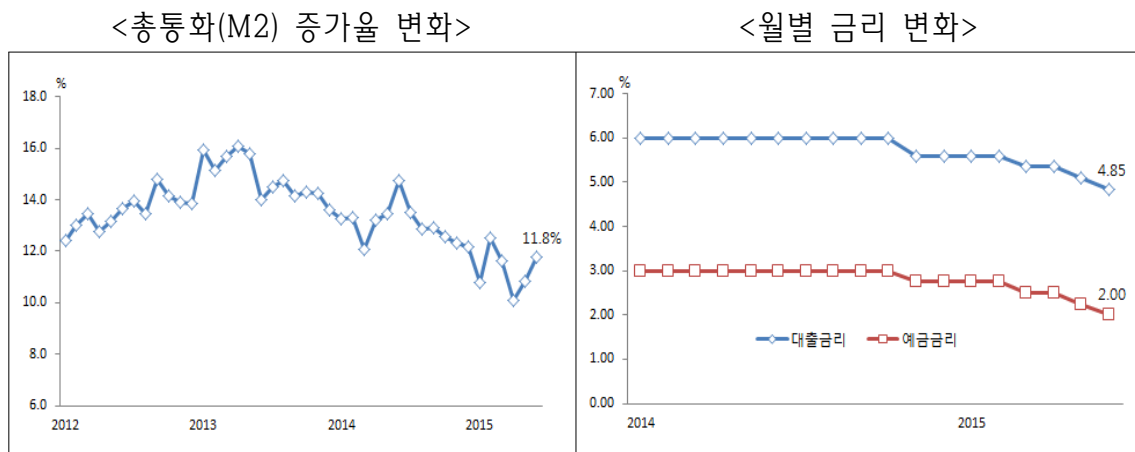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중국통계국, CEIC

III. 중국 경제 하반기 전망

□ 중국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 및 유동성 확대 정책으로 경기 하강을 억제할 전망

- 중국 정부의 유동성 확대 정책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전망
 - 금리 인하 등 중국 정부의 유동성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총통화(M2) 증가율은 11.8%로 정부 목표치 12.0%에 미달하고 있어 중국 정부는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확대하려고 할 것임
- 정부 프로젝트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되면서 정부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
 - 중국 정부의 올해 재정적자 목표는 지난해 국내총생산(GDP)의 2.3%에 해당하는 1조 6,200억 위안으로 설정
 - 정부소득과 정부지출로 추정한 경우 상반기 현재 중국 정부는 2,312억 위안의 재정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하반기 재정지출은 더욱 증가할 전망



자료 : CEIC

□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인한 부동산 시장 회복 가능성 확대

- 금리 인하와 부동산 활성화 정책 효과로 부동산 가격 상승 및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회복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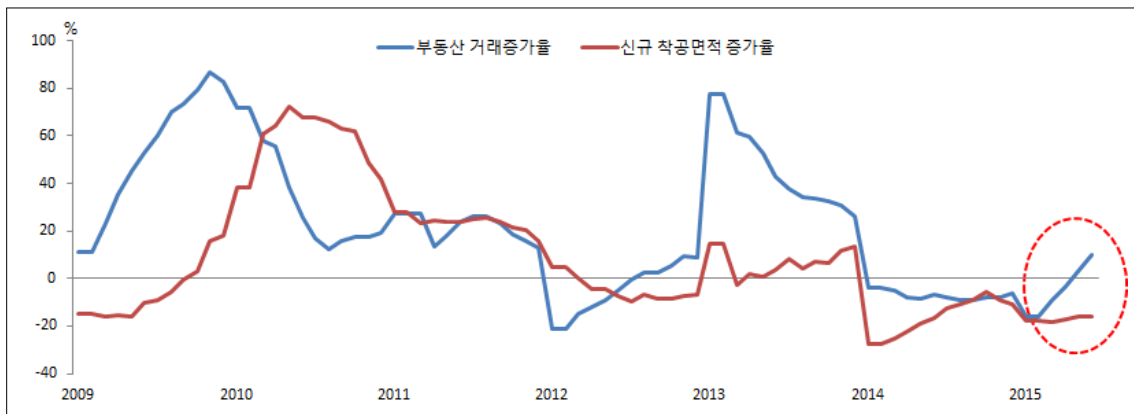
- 6월 평균 신규주택 가격은 1㎡당 6,686위안으로 전월 대비 0.61%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6.68% 상승

* 6월 상하이 평균 주택가격은 1㎡당 2만 777위안으로 전월 대비 5.9% 상승하는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가파르게 나타남

- 2014년 1월 이후 감소세를 지속해오던 부동산 거래 증가율이 3월 이후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며 6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0.0% 상승

- 하반기에도 금리 인하, 기준율 인하 등 유동성 확대 정책이 실시될 것으로 보여 부동산 거래량은 더욱 증가할 전망

<부동산 거래증가율과 신규 착공면적 증가율>



자료 : 중국통계국, CEIC

- 일대일로, 경진기 협력개발 등 초대형 지역개발 프로젝트 관련 인프라 투자가 증가하면서 중국 경기 하방을 억제하고 경제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전망

- 일대일로 프로젝트 관련 투자로 중국 경제성장률 0.2~0.3%p 상승 전망

- 민생증권 분석에 따르면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관련 현재 중국 내에서 계획하거나 이미 추진 중인 프로젝트 규모가 1조 400억 위안에 이릅니다

* 이 중 철도 투자규모가 약 5,000억 위안으로 가장 많고 항구 수리시설 투자 1,700억 위안, 고속도로 투자 1,235억 위안, 공항건설 투자 1,167억 위안 순으로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관련 투자가 전체의 약 68.8%를 차지

- 경진기(京津冀 : 베이징, 텐진, 허베이성) 협력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세 지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, 철도 등 교통인프라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

* 경진기 협력개발 프로젝트는 일대일로, 장강프로젝트와 함께 3월 열린 전인대에서 2015년 국가 중점사업으로 선정

- 경진기 협력개발 프로젝트는 중국 수도권의 교통인프라 구축, 환경개선, 산업구조 개편으로 요약되며 이 중 교통인프라 구축을 우선 사업으로 추진

* 「북경교통발전강령 2014~2030」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수도경제권을 연결하는 1개 순환 고속도로, 6개 방사형 도로, 2개 공항, 5개 항구 등의 교통인프라를 구축할 예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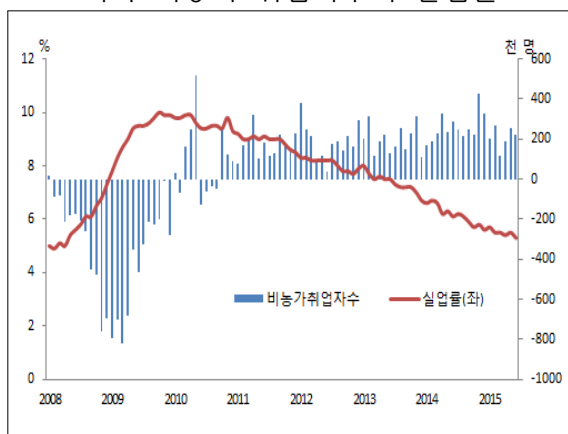
□ 미국, EU 등의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증가 예상

○ 미국의 경기회복과 함께 그리스 사태가 수습 국면에 접어들면서 미국, EU 등 선진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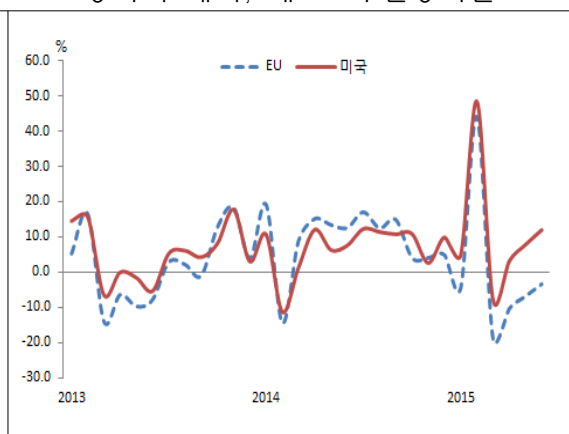
- 미국 6월 비농가취업자수는 22만 3천 명으로 2개월 연속 20만 명을 넘어서며 견고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같은 기간 실업률도 5.3%로 하락

- 또한 그리스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면서 EU경제가 서서히 살아날 것으로 기대

<미국 비농가 취업자수와 실업률>



<중국의 대미, 대EU 수출증가율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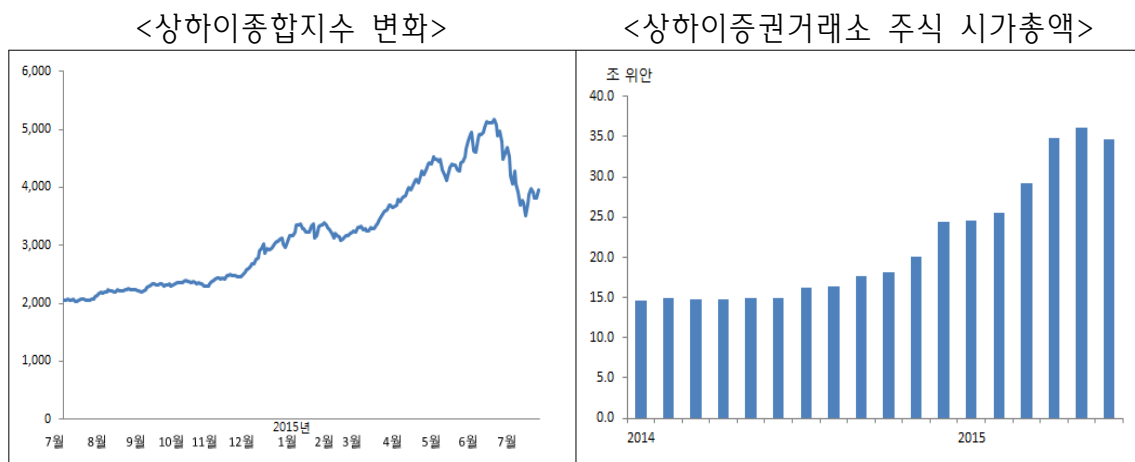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Bloomberg, CEIC

□ 금융업을 중심으로 한 3차산업에 의한 성장세 제한

○ 지난해 말부터 상승하였던 상하이종합지수가 최근 급락하면서 증권을 포함한 금융업의 불확실성이 확대

- 상하이종합지수가 지난 6월 12일 5,166포인트에 도달한 이후 3,500포인트 수준까지 조정 받아 하락폭이 32%에 달하였음
 - * 7월 17일 종가 기준(3,957포인트)으로 고점 대비 -23% 하락
- 또한 상반기 급격한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확대에 의한 금융업의 부가가치 상승세가 하반기에는 제한될 것으로 판단
- 상하이증권거래소 주식 시가총액은 2014년 6월 14조 9천억 위안에서 2015년 5월 36조 1천억 위안으로 확대



자료 : CEIC

□ 주식시장 급락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비증가율 지속적 둔화 전망

- 상하이주식시장 급락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전망
 - 중국 가계 금융 자산 중株式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%에 불과하나 중국 증시 투자의 약 80%는 개인투자자로서 증시 급락은 소비에 악영향을 미침
 - * 증시가 급등했던 5월과 6월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신규 거래를 시작한 개인은 약 1,386만 명에 이릅니다
 - 특히, 급등과정에서 발생한 신용거래 잔고가 해소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투자자들의 소비심리 위축은 연말까지 지속될 전망
 - * 2014년 6월 3,900억 위안 수준에 불과했던 신용잔고 금액(상하이, 선전 합계)은 상하이종합지수가 5,000p 대까지 상승한 6월에는 최대 2조 2,700억 위안까지 확대되었음
 - * 현재 중국 증시의 신용거래 비중은 유통 주식 시가총액의 8.8%에 달하며 이는 미국(2.0%), 일본(0.8%), 한국(코스피 0.3%, 코스닥 2%)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

□ 금융 부분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투자 주도로 정부 목표치 7.0% 성장률은 달성될 전망

○ 증시 급락에 따른 소비 위축에도 불구하고 △중국 정부의 유동성 완화 정책 △인프라 투자 증가 △대외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△부동산 시장 회복으로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은 정부목표치인 7.0%를 지켜낼 것으로 전망

－ 특히 일대일로, 경진기 협력개발 프로젝트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경기 하강을 막고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

* 교통운수부에 따르면 하반기 도로 및 해운 관련 고정자산 투자액은 1조 812억 위안

* 중국철로총공사에 따르면 상반기 철도 관련 투자는 연간 투자목표액 8,000억 위안의 33%인 2,651억 위안으로 하반기 투자액은 5,349억 위안에 이릅니다

○ 또한 지난해 하반기 성장률 둔화에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할 것으로 예상

－ 지난해 중국 경제성장률은 2분기 7.5%에서 3~4분기 7.3%로 하락하였으며 이에 대한 기저효과 또한 작용할 것으로 예상

[참고] 주요 투자은행(IB)들의 2015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

- 대부분의 투자은행(IB)들은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정부 목표치에 미달한 6.7%~6.9% 내외에 이를 것으로 전망
- 투자은행들은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지방정부 채무, 내수 경기 위축 등으로 중국의 성장률이 7%에 미달할 것으로 전망

<주요 투자은행(IB)의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>

(단위 : %)

주요 투자은행	전망 시기	2015년			2016년				
		3Q	4Q	연간	1Q	2Q	3Q	4Q	연간
투자은행 평균		6.8	6.9	6.9	6.9	6.8	6.7	6.6	6.7
ANZ	07/22	7.0	6.5	6.8	-	-	-	-	6.7
Bank of America	07/22	-	-	7.0	-	-	-	-	6.8
Barclays	07/22	6.8	6.7	6.8	6.9	6.6	6.5	6.5	6.6
Berenberg Bank	07/22	6.9	6.9	7.0	6.8	6.7	6.6	6.7	6.7
BMO Capital	07/22	6.7	6.7	6.9	6.6	6.5	6.5	6.5	6.5
BNP Paribas	07/22	-	-	7.1	-	-	-	-	7.3
Capital Economics	07/22	-	-	7.0	-	-	-	-	6.5
Credit Suisse	07/22	-	-	6.8	-	-	-	-	7.0
Deutsche Bank	07/22	7.0	7.2	7.0	7.3	6.7	6.6	6.4	6.7
Goldman Sachs Group	07/22	-	-	6.8	-	-	-	-	6.7
HSBC Holdings	07/22	-	-	7.1	-	-	-	-	7.4
ING Bank NV	07/22	7.0	7.0	7.0	6.7	6.6	6.6	6.7	6.7
JPMorgan Chase	07/22	7.1	7.0	7.0	7.2	7.1	6.9	6.8	7.0
Morgan Stanley	07/22	6.9	7.0	7.0	7.1	7.0	7.0	7.1	7.0
Nomura Securities	07/22	6.9	6.9	6.9	6.8	6.7	-	-	6.5
Standard Chartered	07/22	-	-	6.9	-	-	-	-	6.8
UBS	07/22	-	-	6.8	-	-	-	-	6.5
Citigroup	06/30	-	-	6.9	-	-	-	-	6.7
투자은행 평균		6.8	6.9	6.9	6.9	6.8	6.7	6.6	6.7

자료 : Bloomberg 2015.7.22

IV. 우리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

- 상반기 대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.1% 감소한 679억 5천만 달러, 수입은 3.4% 증가한 136억 7천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542억 8천만 달러 흑자
- 반도체, 컴퓨터, 기타중전기 등 호조세를 보이거나 합성수지, 석유제품, 무선통신기기, 철강판 등은 부진
 - * 품목별 수출증가율(%) : 반도체(17.9%), 컴퓨터(27.3%), 기타중전기(64.2%), 합성수지(-10.9%), 석유제품(-29.7%), 무선통신기기(-10.5%)
 - 성질별로는 원자재, 소비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.1%, 6.0% 감소한 반면 자본재 수출은 4.5% 증가

<한국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>

(단위 : 억 달러, %)

	수출		수입		수지
	금액	증감률	금액	증감률	
2014년	1,453	-0.4	272	0.8	1,181
1월	121	5.2	24	7.3	97
2월	99	-7.7	20	7.1	79
3월	119	-2.6	24	1.9	95
4월	118	-5.1	24	2.5	94
5월	109	-3.3	21	-3.5	88
6월	114	0.8	24	5.5	90
2015년(1~6월)	680	-2.1	137	3.4	543

자료 : 한국무역협회(www.kita.net)

- 상반기 대중국 수출 감소는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
- 경기적 요인 :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, 국제유가 하락 등
 - 구조적 요인 : 중국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자급률 제고, 가공무역 축소, 성장전략 전환과 산업구조 조정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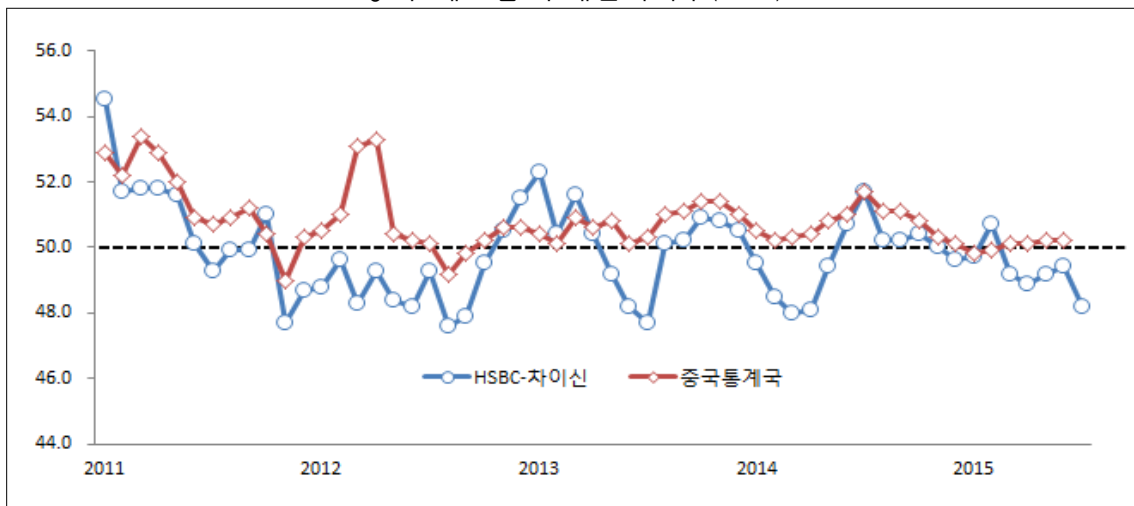
□ 중국 제조업 위축은 3분기 대중국 수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

-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와 제조업 위축은 가공무역 비중이 높은 우리의 대중국 수출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

– 중국 산업생산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선행지수인 제조업 구매관리지수(PMI)는 50.2로 2개월 연속 정체

* 중소기업에 중점을 둔 HSBC-차이신 7월 제조업 PMI는 48.2로 6월의 49.4를 밑도는 것이자, 지난해 4월 이후 15개월래 최저 수준을 기록

<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지수(PMI)>



자료 : 중국통계국, HSBC, 차이신

- 증시 불안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도 대중국 수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

– 증시 불안이 중국 거시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투자자들의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소비 회복이 지연될 전망

□ 중국의 기술경쟁력 향상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제품 경쟁력 약화 등으로 우리 대중국 수출의 중국경제와 탈동조화 현상이 확대될 전망

- 중국제품의 기술력 향상, 자급률 제고, 소비트렌드 변화 등 중국시장에서 로컬 기업의 부상과 한국기업의 경쟁력 약화

- 중국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으로 중국제품의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뿐만 아니라 2013년 이후 부품소재산업 순수출 국가로 전환

* 현대경제연구원에 의하면 2013년 중국의 부품소재산업은 223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이후 2014년에는 451억 달러로 흑자규모 확대

- 샤오미, 화웨이 등 중국 스마트폰 제조 기술력 향상으로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시장점유율이 2015년 2분기 9%(5위)로 하락

*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IHS테크놀로지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중국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샤오미가 시장점유율 18%로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화웨이(16%), 애플(12%), 비보(10%), 삼성(9%), 오포(8%)가 추격. 중국업체의 시장점유율은 70%

- 최근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트렌드가 승용차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(SUV)으로 변화되면서 가성비 높은 로컬브랜드의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

* 합리적이고 활동적인 젊은 세대가 소비의 주력으로 부상하면서 소비트렌드의 변화를 이끌며 상반기 중국 SUV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45.9% 증가 (승용차 4.8%)

☐ 그러나 일대일로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 증가, 중국 수출의 증가 및 자동차, 스마트폰 등의 신상품 출시로 4분기 이후 대중국 수출이 개선될 전망

- 인프라 개선과 관련된 건설장비, 철강, 화학 관련 산업과 스마트그리드, 오폐수 처리, 저탄소 배출 등 환경보호 관련 분야의 수요 증가로 대중국 수출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
- 미국경제의 회복으로 중국의 대세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중간재 수출이 많은 우리 대중국 수출도 더불어 증가할 것으로 전망
- 또한 하반기 현대차는 신형 투싼을,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 5를 출시할 계획으로 있어 신제품 출시효과로 인하여 대중 수출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

☐ 결론적으로 올해 연간 대중국 수출은 전년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

- 중국경제의 둔화, 금융불안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3분기 대중국 수출이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나 4분기 이후 인프라 투자 증가와 중국의 수출 증가 및 신제품 출시 등으로 대중국 수출이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

중국 경제 하반기 전망 및 대중 수출 영향

Trade Focus Vol.14 No.31

발행인 | 김인호

편집인 | 김극수

발행처 |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

발행일 | 2015년 8월 10일

인쇄처 | (주)보성인쇄기획

등록일자 | 1960년 5월 26일

등록번호 | 2-97호